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 ‘산업자원안보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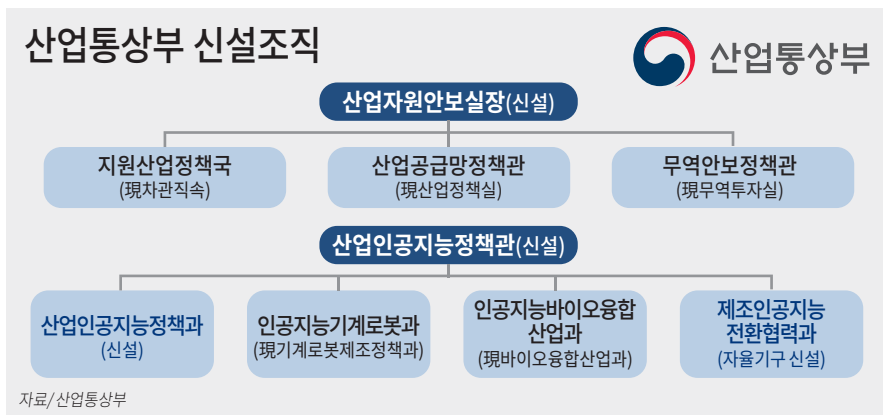
산업부, 12년來 최대폭 조직개편
분산 경제·산업 안보 기능 일원화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새로 만들어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 기능 강화
30일부터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시행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13년 지식경제부에서 통상 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출범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폭 조직 재설계다.

산업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30일 시행된다.

우선 부처 내에 분산돼 있던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자원안보실로 일원화한다. 차관 직속이던 자



원산업 기능과 산업정책실의 산업공급망, 무역투자실의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안보 기능의 정규 실 신설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제조업 AI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

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둔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과 단위로 한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존 산업AI 혁신과와 첨단민군혁신지원과가 정규화되면서 새롭게 구성된다. 기존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는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개편돼 AI 기능을 결합한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과 방산 소부장 생태계 지원을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를 정규 직제화한다. 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 산업정책관 산하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자원산업정책관에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해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 소속이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산업정책실은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간 연계를 전담한다.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되며, 산업인공지능정책관과 첨단산업정책관을 배치해 제조AX,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을 총괄한다. 특히 규제개혁과 규

제샌드박스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해 현장 규제 혁파에 나선다.

이밖에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자유무역협정 관련 조직과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이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국이 신설된 이후 21년 만의 명칭 변경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는 1차관, 1본부, 1차관보·7실(대변인 포함), 2국·20관, 74과 체제, 정원 1250명으로 재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에너지 기능 이관 이후와 비교해 1실, 1관, 4과가 늘었고, 정원은 36명 증원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전자, 獨 ZF 자율주행 사업 인수… 전장 키운다

하만, 2.6조 투입 ADAS 사업 인수
ZF, 100년 이상 역사 업계 1위 입지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삼성전자는 23일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이하 ZF)’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하며, 고성장 중인 전장사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ZF ADAS 사업 인수는 15억 유로(한화 약 2조 6000억원) 규모로, 삼성전자가 2017년 9조원가량을 투입해 하만을 인수한지 8년 만의 전장사업 인수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공조(독일 플랫폼그룹), 전장(독일 ZF ADAS 사업), 오디오(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 디지털헬스(미국 젤스) 분야 사업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M&A를 성사시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마티아스 미드라이히(왼쪽부터) ZF CEO, 손영권 하만 이사회 의장, 크리스천 소봇가 하만 CEO 겸 오토모티브 부문 사장이 23일 독일 ZF의 ADAS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올레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만나 전장 사업을 논의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시작해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종합 전장 업체로 ADAS, 변속기, 새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하만이 인수하는 ZF ADAS 사업은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SoC(시스템 온 칩)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ADAS 기술을 확보하고,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ADAS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만은 이번 인수로 차량용 전방카메라와 ADAS 컨트롤러 등 자동차 주행

보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DAS 관련 기술과 제품을 확보해 고성장하고 있는 ADAS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하만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콕핏에 ADAS를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통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패러다임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은 안전성, 편의성 등을 기반으로 2025년 62조6000억원에서 2030년 97조4000억원, 2035년 189조3000억원으로, 2035년까지 연평균 1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만 CEO 겸 오토모티브 사업부문 크리스천 소봇가 사장은 “이번 인수로 ADAS 사업을 하만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기술 변곡점에 있는 전장시장에서 중앙집중형 통합 컨트롤러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ADAS 사업 인수 절차는 2026년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청년 연봉 3000만원대 중장년층은 4456만원

데이터처, 2024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15~39세 청년층 11.5% 주택 소유

지난해 청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4456만 원으로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를 기록했다.

15~39세 청년층의 11.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미소유자보다 2배 가까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은 3045만 원으로 전년(2950만 원)보다 3.2% 늘었다.

중장년층(40~64세)은 4456만 원, 노년층(65세 이상)은 1973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6%, 6.9% 늘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은 ‘1000만 원 미만’ 비중이 각각 31.8%, 52.8%로 가장 높았다. 중장년층은 ‘1000만~3000만 원 미만’ 구간이 26.9%로 가장 많았다. 연령구간별로는 45~49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494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54세(4807만 원), 40~44세(4734만 원), 55~59세(4535만 원) 순이었다.

소득 있음 비중은 30~34세가 89.3%로 가장 컸다. 이어 35~39세(86.2%), 40대(84.7%), 50~54세(83.0%)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층 주택소유자의 평균소득은 5034만 원으로 미소유자(2721만 원)보다 1.9배 많았다. 주택소유자의 평균소득은 중장년층 5433만 원, 노년층 2299만 원으로 미소유자(3540만 원, 1608만 원)보다 각각 1.5배, 1.4배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모든 생애단계에서 높았다. 청년층 남성의 연간 평균소득은 청년층 여성보다 1.4배 많았고, 중장년층은 1.9배, 노년층은 2.2배 차이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초·중·고 학생 AI 기초소양 교육… 서·논술 평가 확대

서울시교육청, AI 교육 종합계획
내년 고1 학년까지 총 3만명 실시
2027년 5만명 규모로 확대 계획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혁신과 함께 윤리·안전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AI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기반 수업 혁신, 핵심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AI 교육 청사진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런 내용을 담

은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학생의 AI 책임교육을 토대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핵심인재 양성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원 체제와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우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AI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AI·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를 수업에 적용하고, 진

단검사를 거쳐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진단검사는 2025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3만명, 2027년에는 5만명 규모로 늘려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도 강화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는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AI 기반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학

생을 위한 AI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계를 마련한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인 ‘채움아이’를 개발하고, 2025년 6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 110개교로 확대, 2027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I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대학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급별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2026년 AI교육센터 설계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현 서울시교육청 청사 1~2층에 센터를 조성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